민나노 일본어 중급 2 7~12과 독해문 해석

7과 22쪽

찐빵, 무섭다

 어느 날, 남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라는 이야기였다. 어떤 자는 뱀, 어떤 자는 천둥, 어떤 자는 귀신….

그러자 한 남자가 「그런 걸 무서워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라며 으스댔다.

「뭐라고, 생각해보면 하나쯤은 무서운 게 있을 걸.」

「없어.」

「거짓말 하지마. 하나는 있겠지.」

「있지만, 말하면 네가 웃을 테니까…」

「안 웃어, 절대로.」

「그럼 말할게. 실은 찐빵이 무서워.」

「뭐, 찐빵이란 게 그 달고 동그란 찐빵 말하는 건가?」

「그래. 아, 생각만 해도 무섭네.」

「정말? 찐빵이 무섭다니 믿을 수가 없군.」

「아냐. 정말이야. 무서워.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니까….」

거기서 다른 모두는 재미있어하며, 남자를 겁주기 위해 찐빵을 잔뜩 사 왔다.

그러자 남자는 찐빵을 보며 떨기 시작했다.

「아, 무섭다, 무서워. 구해 줘!」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잇달아 찐빵을 먹었다.

「어째서 먹는 거야. 찐빵이 무서우면 못 먹을 거 아냐.」

「아냐, 무서워. 무서우니까 빨리 눈 앞에서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만두를 전부 먹어 치운 후, 한 마디 툭 던졌다.

「다음에는 진한 차가 무서워….」

8과 42쪽

과학자는 어떻게 보이는가?

 아이들은 과학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1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2개국에서 행해진 국제조사에서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아이들이 그린 과학자 그림 6장을 소개하도록 하자. 나이지리아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소녀는 여성 과학자를 그렸다. 양쪽 다 「과학자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한다」「과학자는 언제나 고심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빛나고 있다」며 그 훌륭함을 칭찬하고 있다.

 인도의 소녀는 「물 속에서 부력의 실험을 하는 과학자」, 우간다의 소년은 「여러 도구가 늘어서 있는 방」을 그렸다.

반대로, 영국 소녀와 일본 소년의 그림은 어둡다. 영국 소녀는 버섯 구름을 그려, 「과학자는 때때로 피해를 준다」, 일본 소년의 그림은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기른 채 있는 과학자로, 「일만 생각한다」는 이미지이다.

 「도상국에서는 플러스,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공통되며,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소리가 많은 곳은 아프리카 등으로, 일본은 가장 적다. 그 이유로는, 경제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이 다양해져 과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아사히 신문 2004년 12월 11일 석간으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9과 64쪽

가라오케(노래방)

“KARAOKE”는, 이젠 “JUDO”, “TSUNAM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공통어이다.

 1999년, 미국의 잡지 『타임』은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준 아시아의 20인」을 골랐다. 그 중에, 간디, 모택동, 쿠로사와 아키라 등의 유명인과 함께 이노우에 다이스케라는 일본인이 있었다. 가라오케를 만든 사람이다.

 이노우에 씨는 고베에서 손님의 노래에 맞춰 연주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 손님 중 한 명이 사원여행을 가는데 연주를 테이프에 녹음해주지 않겠냐고 말해왔다. 음 높이나 속도를 그 사람에게 맞춰 녹음해 주니, 매우 기뻐하였다. 그것을 힌트로 이노우에 씨는 연주만 들어 있는 「8주크」라는 기계를 만들어, 1971년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렌탈하는 회사를 시작하였다. 가라오케의 탄생이다.

 그런데, 이노우에 씨는 특허를 취득해놓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와의 기술 경쟁에서도 져 버린 탓에 회사는 도산해 버렸다. 만약 특허를 취득했었더라면, 대부호가 되었을 것이다.

 가라오케만큼 연령, 성별, 지역에 관계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은 없다. 전세계 어느 마을에서든,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이나 동료와, 가라오케에 맞춰 즐겁게 노래 부른다. 다이어트를 위해 가라오케를 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에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 가라오케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인 것이다.

10과 86쪽

기억형과 주의형

우리는 매일 많은 실수를 해가며 살아간다.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전화를 잘못 걸거나, 술을 마시고 집을 잘못 찾아간다거나. 실수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매년 1만명 정도가 죽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수의 실수이다. 비행기 사고, 업무 중 사고, 가정 사고, 이러한 사건들도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이다. 병원에서 수술할 환자가 바뀐 사고도 있었다. 사람은 왜 실수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리즌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으키는 부주의 실수를 연구한 결과, 「기억」형과 「주의」형이라는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억형인 사람은 「하는 것을 잊는」 실수가 많고, 주의형인 사람은 「무심코 해버리는」 실수가 많다.

 여기서 앞 페이지에서 한 실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홀수 번호는 기억형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 4개 이상인 사람은 「멍한 사람」, 6개 이상이면 「상당히 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메모를 하던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일을 하거나, 떠올릴만한 단서가 될만한 것을 준비하는 것 등이 도움 될 것이다.

 한편, 짝수번호에 ○가 3개 이상 있으면 「덜렁이」, 5개 이상이면 「상당히 덜렁이」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심호흡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한 후 조작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좋다.

 짝수번호에도 홀수번호에도 ○가 많은 경우는 「멍한 덜렁이」라는 것이 된다. 그럼, 어느쪽에도 ○가 적은 사람은? 성인군자이거나 완전 거짓말쟁이,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실수를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잊어버린 가장 곤란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가 시게루 『실수의 매커니즘 – 분실물부터 대형사고까지』

일본출판서비스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11과 110쪽

시라카와고의 황금전설

 시라카와고는 합장 건축 양식 마을로 알려져, 세계 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다.

 합장 건축 양식이란, 손바닥을 맞댄 것 같은 형태의 지붕을 가진 주거 시설을 말한다. 이 형태가 완성된 것은 에도 시대 후반 (18세기)로, 무거운 눈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이 아래 사진처럼 만들어져 있다.

 합장 건축 양식에는 못이 쓰이지 않는다. 지붕의 조립이나 수리는,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다. 현금 수입이 적은 탓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건물의 방향은 바람이나 태양의 방향을 생각해서 정해져 있다.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함이다.

 안은 넓고, 2층,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층에서는 누에를 기르고, 아래에서는 화약의 원료를 제조하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 주변에서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어, 에도 시대에 이런 가내 산업이 발달했다. 합장 건축 양식은 시라카와고의 험난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쌀도 안 나고, 소작료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땅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15세기 후반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15세기 후반에 이곳에 찾아와 정착한 자가 있다.

우치가시마 타메우지와 그 일족으로, 시라카와고에 카에리구모죠라는 성을 지었다. 그들은 근처 산에서 금,은을 캐, 꽤나 풍족했다고 한다. 오다 노부나가 등의 권력자에세 금,은을 보내거나, 기근 때에는 마을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120년 간 시라카와고를 계속 다스렸다.

그런데 1585년 11월 29일, 대지진이 일어났다. 「300채 이상의 집과 수백 명의 사람이 남김 없이 사라졌따. 우치가시마의 시대가 끝났다」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카에리구모죠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굴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다. 성에는 금,은이 보관되어 있을 터이다. 그 가치는 지금 돈으로 1조엔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로카와고는 황금전설의 땅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 유산의 잡학사전』 오기노 요이치 저, 일본실업출판사 간행,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합장 건축 마을」의 일부 참고)

12과 132쪽

[좌담회] 일본에서 살다

사회 : 유자와 야스히코

출석자 : 벨터(헝가리), 셰라(미국), 유안(중국), 스진다(태국)

**유자와** 오늘은 일본에서 오래 살고 계신 4명의 외국인 부인을 모셨습니다. 가장 오래 계신 분은 15년, 짧은 분도 6년은 계셨다고 합니다. 그 동안 고생했던 부분이나 기뻤던 일 등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략)

**일본은 시끄러운 날? 조용한 나라?**

**유자와** 그럼, 다음으로 소음에 대한 건요?

**벨터**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마을 전체가 매우 떠들썩해요. 이상한 얘기지만, 실은 일본에 와서 받은 문화 충격 중 하나는, 어린아이의 샌들이나 주전자에서 울리는 삐, 삐 소리였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닫는 소리나 계속 울리는 철도 건널목 소리, 말하는 자동판매기, 켜둔 텔레비전, 역의 안내방송 등이 처음에는 시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부다페스트도 도시이지만, 주택지는 매우 조용합니다. 정말 벌레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요.

**스진다** 그럼 방콕에서는 절대로 못 살겠네요. 방콕은 요즘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자동차 소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츠노미야는 정말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셰라** 저도 우라야스는 굳이 고르자면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따뜻한 계절이 되어 창문을 열어두면, 아이들에게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하는 말을 들어요.

**유자와** 역 안내 방송은 어떤가요?

**벨터** 다음 역이 어디인지, 어느 쪽 문이 열리는지 말해주는 차내 안내방송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플랫폼의 안내 방송은 시끄럽죠.

**유자와** 테이프 레코더를 사용한 방송에 더해서, 역무원이 같은 내용을 또 말하거나 해서, 같은 걸 3번 정도 안내하죠.

**셰라** 하지만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자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뉴욕 등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소리는 나고 있는데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일본의 안내 방송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다가,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처럼 정중한 말투라서, 좋은 일본어 공부가 되요.

**유안** 안내방송에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벨터** 하지만 없어도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최근 음악으로 바꾼 역도 많은데, 그 벨소리도 시끄럽죠.

**유자와** 벨소리? 아, 출발할 때 벨소리 말이군요.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탈 것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벨터** 네, 있지요. 그게 반드시 시끄러운 벨소리나 안내 방송 덕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커뮤니티』 제104호 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소로부터)